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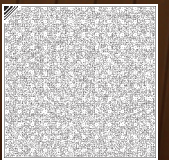


가톨릭부산

www.catholicbusan.or.kr

2018년 신앙예를 통한
본당 공동체의 영적 쇄신 (1)

믿음의 해



제2520호 2018. 12. 23.



“주님께서서 필요하시답니다.” (루카 19,34)

2018년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12월 28일(금) 10:00 주교좌 남천성당

대림 제4주일

제 1 독서 미카 예언서 5,1~4ㄱ

화 답 송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 (◎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후렴)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1.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2.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3.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이다. ◎

제 2 독서 히브리서 10,5~10

복음 환호송 루카 1,38

◎ 알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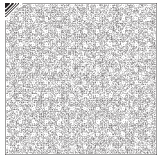
복 음 루카 1,39~45

영성체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오늘 제1독서는 미카 예언서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씀은 마태오 복음의 주님 강생 이야기 안에서 등장한다.(마태 2,6) 미카 예언서는 마태오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메시아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한다.”는 신학으로 선포된다. 제2독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님의 강생 이야기와 거리가 먼 주님의 희생 제사 말씀이다. 이 희생 제사 말씀은 “주님의 강생은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를 향하는데,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강생으로 시작되어 파스카로 완성된다.”는 선포다. 복음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다. 이 방문 이야기는 주님 강생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에게 “강생의 극적 긴장”을 전해준다. 복음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왔을 때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41).” 고 전한다. 엘리사벳의 이

반응은 마리아를 만났기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엘리사벳을 찾아 오셨다. 엘리사벳이 태중의 요한과 함께 주님을 뵈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엘리사벳과 태중의 요한을 찾아 오셨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20)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자리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오셨다(제1독서). 우리가 주님께 제물과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서 파스카 제사를 봉헌하셨다(제2독서).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요한과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유다 한 고을, 즈카르야의 집으로 오셨다(복음). 주님은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손에 강생하신다. 성체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강생하신 주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 문을 열어 드리면 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보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문을 열어 드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강생하신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위하는 분이시다.



한 종민
야누아리오 신부
메리놀병원 원목실장



사회생활에서 부러움을 받는 금수저,
기반이 단단하다는 뜻이지요.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
신앙생활에서 보면 다이아몬드 금인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왜 마다하는지요…….



글. 장정에 마리아고레피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2.24(월)~25(화)
한종민 신부(메리놀병원 원목실장)
12.26(수)~29(토)
이정철 신부(화명성당 보좌)

주님 성탄 대축일 생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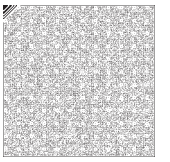
방송/ 12.25(화) 11:00~12:00
장소/ 주교좌 남천성당
진행/ 조운진 아나운서

사제부제 서품식 생방송

방송/ 12.28(금) 10:00~12:00
장소/ 주교좌 남천성당
진행/ 신호철 신부,
김현지 아나운서



가난한 이웃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연말이면 화려한 불빛, 성탄트리 사이로 캐럴이 울리고 자선냄비가 등장합니다. 또 정치인이나 단체들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찾아 쌀과 라면, 연탄 등 구호품을 전달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나눔에 동참하는 동료들에게 더 큰 힘을 모으자는 내부결속과 보고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나눔은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 이들과 함께 추위를 이겨내고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편으론 온정을 베푸는 데 있어,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함을 느낍니다. 언론과 사진촬영 모두 시혜자의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 수혜자인 어르신이나 청소년 가장, 아픈 사람이나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들도 어딘가에 공개될 자신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이 있고, 때론 '원숭이가 된 듯한 기분'에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최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라도 해주는 배려가 있다면 온정을 베푸는 데 있어 인권감수성까지 높다는 생각에 흐뭇할 것 같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출산할 방을 구하지 못해 동물의 마구간에서 말 밥통에 눕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연약한 아기로, 초라한 이방인 가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이웃들,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메시

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공동번역 마태 25,40)라고 하십니다.

잠시 생각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굶주리는 이에게 한 끼의 밥을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친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더 낮은 자세를 취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환대할 것이며, 예수님을 굶주리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 해방시키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 김 검 회 엘리사벳
동대신성당, 정의평화위원회
busanjustice@naver.com

한처음
교구가
시작될 때

정명조 주교 교구장 착좌와 부산평화방송 설립

1999년 8월 28일 부산교구 부교구장인 정명조 주교는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거행된 착좌식을 통하여 교구장직을 승계하였다. 새 교구장이 된 정명조 주교는 착사에서 "평신도들에게는 삶의 현장이 바로 증거의 장이 되게 하고, 수도자들에게 철저한 봉헌을, 사제들에게는 자신과 동반자로서 겸손과 성화를 위해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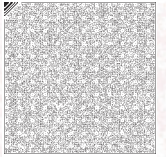
정명조 주교는 2000년 대회년에 '새로운 복음화의 해'라는 제목으로 교구장 첫 사목교서를 발표하였다. 사목교서에서 교구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적어도 4만 명의 새 신자를 선교 목표로 세워 매진하도록 촉구하였다. 각 본당에서는 교구장의 당부대로 가두선교까지 하면서 선교에 열성적으로 매달렸다. 그렇지만 신영세자로 인해 신자수는 조금씩 증가하지만, 도리어 영세자율은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부산교구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분석 결과,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복음화의 기초는 외부적인 선교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구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는 가정공동체의 복음화를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정 주교는 1999년 10월 8일 부산평화방송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사장으로 이영목 신부를 임명하였다. 2000년 1월 6일에는 부산평화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월 3일에 부산평화방송 시험전파를 위해 주파수 FM 101.1Mhz 출력 3kw로 송출하였다. 5월 3일 정명조 주교의 주례로 가톨릭센터 9층에서 부산평화방송 개국 축복식을 가졌다. 2003년 9월 7일 부산평화방송 울산중계소를 취득하였다. 부산평화방송은 전파 매체를 통해 교회와 지역 사회에 정의와 사랑, 평화에 기초를 둔 인간공동체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 한건 신부(순교성지사목) jubo@catb.kr

2018년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12월 28일(금) 10:00 | 주교좌 남천성당 | 주례 : 손삼석 요셉 주교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루카 19,34)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 43,1)

사제 서품 후보자

첫미사

12월 30일(일)



고동균(안젤로)
민락 10:30



김무(헨리코)
과정 10:30



신동근(사도요한)
영주 10:30



김상준(베네딕토)
거제동 11:00



전재경(요셉)
달맞이 11:00



이근희(다미아노)
화명 11:00



최윤호(로마노)
금정 11:00

서품식을 위한 9일기도 (6면 참조 바랍니다.)

교통 및 주차 안내

1.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남천성당, 교구청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2. 전세버스, 대형버스 이용 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3.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지하철 2호선 남천역 2번 출구 하차 후, KBS방송국 방향으로 50m 정도 걸어오시면 남천성당입니다.
- ▶ 버스 이용 : 남천 지하철역 또는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차
- 일반 : 20, 38, 39, 40, 41, 42, 51, 83, 83-1, 108, 131, 155, 급행 : 1001

인터넷 생중계 안내 ▶ 컴퓨터 및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 ① 교구 홈페이지 <http://www.catholicbusan.or.kr>
- ② 유튜브(youtube) : 천주교부산교구 2018 사제부제서품식 검색

부제 서품 후보자

전동목(안드레아) 남창 옥중현(미카엘) 망미 김진영(베네딕토) 물금 정성호(시몬) 우동



352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르 15,34; 마태 27,46)라고 외칩니다. 스스로 원하신 수난인데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하느님을 원망하며 인간적 약점을 드러낸 말인지요?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2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시편 22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나누어 가지며 누가 무엇을 차지 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한 일(마르 15,24)도 시편 22,19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사실, 시편 22장은 억울한 폭력 앞에서 하느님께 부르짖는 이의 노래였습니다. 악당들로 인한 환난 앞에서 하느님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주십사, 구원을 주십사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22장은 중반(22절)부터 주님께서 기도하는 이의 응답을 들어주셨음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가려한 이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편 22장은 탄원의 노래가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폭력 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느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되살릴 것임을 신뢰하며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었기에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2,2의 외침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셨기에 가까이 죽음의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시편 22장이 노래하던 그대로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시편 2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부주임 및 보좌신부와의 연례 만남

지난 12월 13일(목) 푸른나무 교 육관에서 '부주임 및 보좌신부와의 연례 만남' 행사가 사제 74명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교구 사제인사 위원회(위원장 : 손삼석 주교) 주관

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위원장 인사, '사제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 그룹 토의, 종합 발표, 식사 나눔 순으로 진행되었다.



청학성당 봉사단, 표창장 수상



청학성당(주임 : 윤승식 신부, 회장 : 안석호 미카엘) 신자 이화자 아네스 외 4명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영도구청 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에 성당에서도 지난 12월 2일(일) 교 중 미사 중에 시상식을 열어, 신자들의 박수갈채 속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봉사단은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려 20년 동안 매주 '어르신 점심 식사 준비 및 밑반찬 만들기' 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교구 홈페이지, 신자 블로그/카페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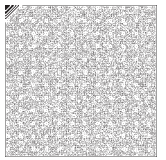


최근 교구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교회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자 참여 메뉴들을 만들었다. 그 중 하나인 '신자 블로그/카페' 메

뉴는 기존 신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당 제단체 카페(청년회, 주일학교, 사진가협회 등), 개인 블로그 등을 소개하고,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앙과 관련된 주제(가톨릭 관련 사진, 성경, 성가, 신앙생활 나눔 등)로 활동 중인 곳이라면, 교구 신자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http://www.catholicbusan.or.kr>

2,000차 주회 축하합니다.



송도성당, 계약의 궤 Pr.
12월 12일(수)
주임 : 천경훈 신부, 단장 : 김계숙 세레나



양산성당, 증거자들의 모후 Pr.
12월 12일(수)
주임 : 김성만 신부, 단장 : 김광수 프란치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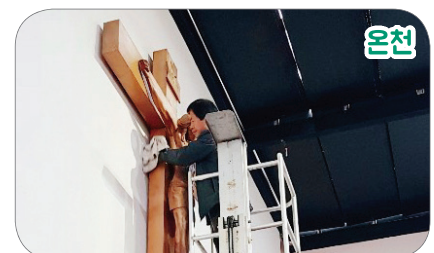


기장성당, 그리스도인의 도움 Pr.
12월 13일(목)
주임 : 김성학 신부, 단장 : 기외자 미리암

성탄 맛이 대청소



12월 16일(일)
주임 : 김대하 신부, 회장 : 정연민 힐라리오



12월 16일(일)
주임 : 박상대 신부, 회장 : 박순호 프란치스코

<서품식을 위한 9일기도> 12.19(수)~27(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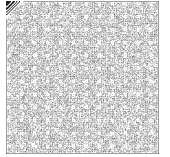
사제들을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P.91) 후
주모경을 바칩니다.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박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기도회
- 12.26(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회
- 12.26(수) 11:00~16:00
중식 제공, 버스 운행합니다.
- 금요철야기도회(송년의 밤)
- 12.28(금) 23:00~29(토) 04:00
- 후원회 월미사
- 12.31(월) 11:00~15:10
- 중식제공, 양형영성체, 도유와 안수
- 451차 교구묵상회(청소년)
- 1.11(금) 15:00~13(일) 17:30
- 선착순 80명, 회비: 12만원
- 버스: 14:0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교 구

예비신학생 피정(1차, 2차, 3차)

1차(초6) 1.7(월) 14:00~8(화) 13:00
2차(중1) 1.8(화) 14:00~9(수) 13:00
3차(중2~고1) 1.14(월) 14:00~15(화) 13:00
신청마감: 12.31(월) / 분당별 접수
대상: 차수별 대상 확인 / 회비: 3만 5천원(입금
: 부산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문의: 629-8760~2(성소국)

2020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

· 1.26(토)~27(일) · 도보 성지순례
문의: 629-8760(성소국)

전산홍보국 직원(홈페이지 담당) 구함

모집분야: 홈페이지 담당(웹디자인, 웹마스터,
컨텐츠 개발) 1명 / 마감: 12.31(월)
제출서류: 이력서, 본당 주임신부 추천서, 자기
소개서 / 접수: hongbo@catb.kr
문의: 629-8752(전산홍보국)

본 당

서동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회계, PC능숙 / 문의: 525-3744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대연성당 영어교실

기초반: 10:00~10:50 화/목반, 수/금반
중급반: 11:00~11:50 화/목반, 수/금반
회화반: 12:00~12:50 화/목반, 수/금반
· 1.2~2.28 (2개월 3만원) / 문의: 010-8501-9250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하는

울산대리구

2019년 중독 예방교실

- 일 시 : 1월 19일(토) 09:00~16:40
- 장 소 : 울산대리구청 4층 성전
- 대 상 : 전신자 ■ 회 비 : 1인당 12,000원
- 신청마감 : 1.11(금) 16:00 (선착순 130명)
- 문 의 : (052)201-6505(조효운 데레사)
- ※ 중독검사 및 상담, 고해성사도 가능합니다.

기관·제 단체·위원회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12.27(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최혁 신부(3방공포여단 천마대성당)
울산: 1.11(금) 10:00 옥동성당
주례: 김기태 신부(군중후원회 담당)
문의: 751-3610, (052)274-3608

교구평형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12.29(토) 09:00(11:00 미사) / 개인 도시락 지참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 모 순례
기차: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 문의: 622-5588(평협)

교구평형 본당순례 확인서 접수

1차 접수마감: 12.31(월) / 문의: 622-5588
주교님 인준서 수여식: 2.10(일) 15:00 남천성당

농아인선교회 1월 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기초반, 중급반 개강: 1.8(화) 19:00~20:30, 3개월 과정
주 2회 (화, 목) / 수강료: 5만원(교재비 별도)
고급반 개강: 1.10(목) 19:00~21:00, 3개월 과정
주 1회 (목) / 수강료: 7만원(교재비 별도)
※ 수강 인원 부족 시 폐강될 수도 있음.
문의: 751-8693, 010-8001-4435

가톨릭음악협회 총회 및 송년 감사미사

· 12.26(수) 19:00 · 양정성당
주례: 임석수 신부 / 문의: 010-8545-6504

울산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연합철기도

· 1.8(화) 13:00~15:00 · 복산성당 소성전
문의: 010-2428-5785

바오로아람터 후원회 미사

후원월례미사: 12.24(월) 10:30
후원감사의 밤: 12.26(수) 18:30
· 바오로아람터 / 문의: 514-6988

가톨릭음악교육원 제28회 겨울음악학교

· 1.24(목)~26(토)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주제: 화답송 창법 및 전례 특송곡
과목: 발성법, 전례오르간, 그레고리오성가, 합
창지휘법, 전례합창, 전례특강
대상: 성가대 및 전례봉사자 / 신청: 1.17(목)까지
수강료: 21만원 (마감 이후 22만원)
문의: 517-8241~2, www.bcmusic.or.kr/mec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
net/catholic-sinhak) / 문의: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464-3909
·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3층 성전(박성태 신부)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지지로! 가브리엘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본당 내 고등학생/대학생 중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
문의: 본당 사회복지분과장 또는 청소년분과장

혼인미사 예식 및 예약 안내

금, 토, 일, 공휴일: 11시, 13시, 15시, 17시
문의 및 예약: 051.441.3500 (수~일)
* 2018년 성전봉헌기념 특가 예약 중 *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p>목주반지 전문 교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인환 (가롤로) · 김경자 (모니카)</p>	<p>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례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p>영업사원 모집 장례담당 모집 주부, 여성, 초보환영 투잡 및 알바 가능 크루즈여행, 상조(장례)서비스 (주)부모사랑 010-7430-3030</p>	<p>수려안의원 성형외과 · 피부과 정 욱 731-6885 (바오로) 장산역 화인코리닉센터 6층 (10번출구)</p>	<p>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용,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성영, 박상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p>	<p>○ 등금신청에서 케어까지 ○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 국비지원(85%~100%)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병덕 (사도요한) 010-7448-7858 가인방문요양센터</p>	<p>SINCE 1965 송월타월 부산진대리점 (부산진시장, 우리은행 옆) T. (대) 632-5690 010-4807-5690 양홍식(토마스) 유명애(루시아)</p>	<p>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88.100.110. 등 MK80-마스타30M 짚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짚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짚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담사(상담환영) 1833-6368, 010-3831-2403 심현진 (프란치스코)</p>	<p>삼진커텐 수입커텐, 완제품커텐, 우드브라이트, 콤브리타이트 이영복(요셉) · 김미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p>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6층 (15평, 20평, 35평, 51평)
가톨릭센터 직원 구함
 대상 : 기획팀 (문화공연 기획, 센터운영)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교적사본 / 마감 : 1.7(월) 17:00, 면접 개별통지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육·모집·기타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 12.24(월) 14:00 / 문의 : (054)955-4133~4
 · 부산종합사회복지관(망미성당 옆)
 지도 : 최영배 신부(영성강의, 미사 주례)
 ※ 대관 사정 상 24일로 날짜변경됨을 알립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드는 마음 공간
 · 12.29(토) 14:00~30(일) 14:00 · 양정동 성모
 여고 내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원
 대상 : 20세 이상 딸과 어머니 (선착순 10쌍)
 회비 : 8만원 / 문의 : 010-2430-7816

중고생 살레시오 '3S영성 리더십'교육(S과정)
 · 1.18(금)~20(일) 09:30~16:30
 (단, 마지막날 11:00부터 / 부모님 초대)
 G, P, S과정 수료자 : VIDES(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 가입가능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예비중학생 겨울방학 특강 <집중공부교실>
 · 1.12(토) 10:00~12:30, 14:00~16:30(총 5시간)
 강사 : 임성미(서울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독서지도전문가) / 내용 : 학습습관과 진단, 집중력강화, 시험전략, 시간활용 등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아이들의집 조리원 구함
 대상 : 조리사 자격소지자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 542-5980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청년 MSC 송년피정
 · 12.30(일) 10:00~17:00 · 본원
 대상 : 20세~45세 이하 미혼남녀 / 피정비 : 없음
 주제 : 비움과 채움 / 문의 : 010-4270-3103

새해 해맞이 새 예루살렘 밤샘 기도회
 · 12.31(월) 22:00~1.1(화) 06:00 · 새 예루살렘
 강사 : 왕영수 신부, 김태광 신부
 사전 전화 신청(통행을 위한 비포 발급 위해)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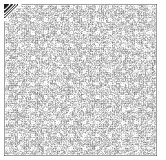
예수성심시녀회 비움과 채움을 위한 송년피정
 · 12.31(월)~1.1(화) : 대구 앗습분원
 대상 : 만 35세 미만 미혼남녀
 문의 : 010-9286-2247

사랑의씨든수녀회 젊은이 송년피정
 · 12.31(월) 18:30~1.1(화) 13:00
 · 서울 씨든 영성센터 / 참가비 : 2만원
 대상 : 미혼 남녀 / 문의 : (02)744-9825

서울삼성산성지 12월 송구영신 대피정
 · 12.31(월) 18:00~1.1(화) 04:00
 문의 : 010-6812-3334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 1.5(토) 15:00~19:00 · 서울가톨릭대학 의과학
 연구원 대강당 2층(서울성모병원 내)
 대상 : 청년, 청소년, 일반신자 / 참가비 : 1만원
 문의 : (02)6253-3373, 010-8360-3700
 주최 : 사랑이피는기도모임(AYG)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겨울진학캠프
 · 1.8(화)~10(목) / 문의 : (054)338-0530
 대상 : 진학희망 학생(현 초6~중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2.11(월)~22(금) · 스페인 / 330만원
 · 3.18(월)~29(금) · 멕시코, 쿠바, 페루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 정시 1차 모집
 원서접수 : 12.29(토)~1.11(금)
 문의 : (054)851-3021, 3023

목포가톨릭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12.29(토)~1.3(목) 인터넷 원서접수
 처(유웨이) / 모집학과 및 인원 : 간호학과 12명
 문의 : (061)280-5108, 5150

꽃동네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모집학과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간호학과
 원서접수 : 12.29(토)~1.3(목)
 문의 : (043)270-010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모 상담(국내 입양)
 문의 : (02)764-4741~3, www.holyfec.or.kr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
 대상 : 15~30세 남자 / 문의 : (02)828-3600

2019 교구 탁상용 달력 공동구매 * 주제 전례시기에 맞춘 제대꽃

교구에서 보급하는 '2019년 교구 탁상용 달력'이 완판되어, 특별히 오는 12월 23일(일)까지 공동구매 형태로 신청받습니다.

○ 공동구매 방법 : 1부 이상 가능
 (신청 합계 500부 이상일 경우만 제작 가능)

- 보급방법 1월 중 본당에서 수령
- 신청방법 교구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카카오톡 <천주교부산교구 탁상달력> 친구 추가 후 신청
- 내용 :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부수
- 판매가 3,000원 / 1부 (임금은 신청마감 후 통보)
- 문의 051-629-8752 (전산홍보국)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언어청각치료학과 무료상담 실시
 상담대상 : 취학전 의사소통장애 아동
 신청기간 : 1월 14일(월)~25일(금)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문의 : 언어청각임상센터(510-0847, 0829)
 언어청각치료학과(510-0849), sht.cup.ac.kr
 입학처 : 051-510-0701~4 / ipsi.cup.ac.kr

올해도 「착한 사마리아인 기금」을 통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도움으로 12명에게 총 19,276,78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933-7027(부산가톨릭의료원 기획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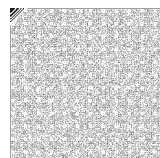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 나눔 세상**
가톨릭센터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한 합창단원 모집 *정기연습 예정일 : 매주 월 19시 가톨릭센터 302호
 대상 : 교음악 합창음악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오디션 : 1월 14일(월) 20시 가톨릭센터 302호 - 자유곡 1곡과 Polyphony초견 (악보 당일 제시)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준재활요양병원 재활중점/노인요양/외래치료 (통증치료, 신경·정형외과) 부산시 동래구 총원대로 372(안락동) 상담, 문의 525-7711 병원장 최준식(안토니오)</p>	<p>해상, 물류, 보험, 기업법무, 영문계약, 건설 부동산, 각종 민, 형사 및 가사 변호사 직접상담 법무법인 인화국제 변호사 이정민(베로니카) 503-0037, fax 503-8998 Email : lawyer.jmlee@gmail.com 부산 연제구 법원앞로 15번길 6 은하빌딩 2층</p>	<p>동래교차로(수안동) 독일보청기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즉석 A/S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p>	<p>잇몸치료/보철임니/임플란트 박진철치과의원 원장 박진철(토마스) 552-2811 동래시장 횡단보도 앞 2층</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의원 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 박인호(루카), 한경문 소화기내과 : 최명락, 유원희, 남희성 류마티스내과 : 서수홍(리파엘) 영상의학과의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겸직 : 박정미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치매나 노환으로 아픈 부모님께 딱으로 직접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립니다 (주)라파엘안나노인복지센터점 시설장 양재순(안나) 010-5923-1314 장기요양 1-5등급 받으신 분들은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아직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p>	<p>동래 삼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네스)</p>	<p>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종한(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p>	<p>요양전문병원 달맞이요양병원 노인성 치매 중풍 말기암 호스피스24시간 간병 상담 : 010-3845-3410 (이진매) (토마스아퀴나스) 744-5275, FAX 744-5278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 나길 30</p>	<p>SM수맥휴심대 거실 황토스파 평화방송, 신문광고 중 주보 지참 교우 우대 1588-5335</p>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8월 발표된 2018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학금은 평균 연 417만원으로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단연 1위입니다.

또한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으로 4년 연속선정 및 전국 우수 국가근로장학사업거점대학으로 선정되어 ‘산업체국가근로장학’, ‘대학청소년교육지원장학’, ‘다문화멘토링장학’, ‘교육지원장학’ 등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국가근로 장학사

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취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취업률** 역시 대단히 우수합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중 2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등이 공동주관한 대학평가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청년드림대학’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단순한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 또한 대단히 우수합니다.

부산가톨릭대는 간호, 보건계열 학생들이 각종 국가자격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여러 차례 차지하며, 영

남권 대학 중 간호, 보건계열 최고의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54주년을 맞이한 부산가톨릭대는 지난해 ‘CUP Action Plan+’를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전인적 인성교육, 세심한 학사관리, 맞춤형 취업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으로 창의·융복합·소통·도덕·공동체·국제화 등의 항목을 통해 ‘지성’, ‘인성’, ‘공동체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존의 활동 영역을 뛰어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트리니타스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혁신과 성장을 함께하는 대학!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가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놀간호전문학교 개교

1962
-1979

- 1962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설립
- 1964 메리놀수녀병원 부속 간호학과 개교 제1회 입학식
- 1967 메리놀 간호학교 제1회 졸업식
- 1979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으로 개편 인가



메리놀간호학교 캠퍼스 개교식



메리놀간호학교 졸업식

1980
-1999

- 1980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 부곡동 신축
- 1990 부산가톨릭대학 설립 인가
- 1994 대학원 설립 인가 (간호/보건과학/생명과학/일반대학원으로 확대)
- 1999 부산가톨릭대학교와 지산대학 통합 부산가톨릭대학교로 교명 변경



부곡동 지산 캠퍼스 전경



부곡동 지산 캠퍼스 전경



부산가톨릭대학교 제1회 입학식

2000
-2009

- 2000 평생교육원 개원 창업보육센터 개소
- 2004 산학협력단 창단
- 2006 종합인력개발원 개원

2010
-현재

- 2013 라파엘노인데이케어센터 개원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 2014 개교 50주년
-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동남권 대학 유일 최우수 A등급
- 2016 지방대학특성화(CK-1)사업 3개 사업단 선정 한국어교육센터 개소
-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선정 동남권 대학 유일 2017 우수청년드림대학 선정
- 2018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4년 연속 선정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최고등급 자율개선대학 선정



라파엘노인데이케어센터



부산가톨릭대학교 50주년



2018 부산가톨릭대학교의 날

201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주요사항

- ◎ 원서접수 : 2018.12.29.(토) 09:00~2019.1.3.(목) 18:00
- ◎ 모집인원 : 147명
- ◎ 문의처 및 자세한 정보 : 051)510-0701~4



입학처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학과 안내

단과대학	학과	학과 소개
간호대학	간호학과	글로벌 간호전문직 역량을 겸비한 생명사랑 간호인재 양성!
	노인복지보건학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노인전문 사회적 케어인력 양성!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창의적 의생명과학자 양성!
	물리치료학과	차세대 물리치료 창의인재 양성!
	방사선학과	방사선과학 분야를 선도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치기공학과	글로벌 치과기공 창의인재 양성!
	병원경영학과	참되고 창의적인 인성을 지닌 보건 전문인력 양성!
	언어청각치료학과	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언어치료사 및 청능사 양성!
응용과학대학	환경공학과	미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환경공학도 양성!
	산업보건학과	차세대 산업보건인재 양성!
	환경행정학과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환경행정 융합인재 양성!
	컴퓨터공학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IT전문가 양성!
	소프트웨어학과	ICT융합기술 및 IoT산업적응형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투철한 윤리식과 글로벌 경영마인드를 갖춘 경영전문가 양성!
	유통경영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유통 전문인력 양성!
	경영정보학과	창의적 IT 경영전문인재 양성!
	사회복지학과	참다운 지성과 아름다운 인성을 갖춘 글로벌 사회복지 인재 양성!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와 상담의 지식과 실천을 겸비한 선도적 인재 양성!

최초 합격자 장학

2019학년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전원에게
등록금 50%의 장학금 지급

전체 수석 장학

4년간 등록금 전액 &
한 학기당 50만원의 도서구입보조비

전체 차석 장학

2년간 등록금 전액 &
한 학기당 50만원의 도서구입보조비

학과별 수석 장학

1년간 등록금 전액

최근 2년간 취업률

(취업통계조사 2017.12.31 기준)

2016년
부산 1위
전국 3위



취업률 77.9%

2017년
부산 1위
전국 3위



취업률 74.5%

졸업생 1,000명 이상-2,000명 미만인 4년제 대학 기준



장학금은 내가 줄게
학교는 누가 올래?



약 63가지의 다양한 장학제도로
재학생 1인당 장학금 1위
(연 417만원, 2018 대학정보공시 8월 기준, 부산지역 4년제 대학 중)

장학금 '부산가톨릭대' 1위

공시 정보로 본 부산 4년제 대학 대학 알리미 사이트에서 15곳 비교
417만 원대 부산가톨릭대-동명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가장 많아
평균 등록금 인제대 가장 비싸고 1인당 교육비 부산대 등 국립대 두세
종도대학 학생생활수준에 상대해 놓고 전일교원 강의 담당비율도 고신대 최고

대학명	장학금	등록금	교육비
부산가톨릭대	417.0	1,000.0	1,417.0
동명대	417.0	1,000.0	1,417.0
인제대	350.0	1,200.0	1,550.0
고신대	300.0	1,100.0	1,400.0
부산대	250.0	1,000.0	1,250.0
연세대	200.0	1,100.0	1,300.0
한양대	150.0	1,000.0	1,150.0
고려대	100.0	1,000.0	1,100.0
한림대	50.0	1,000.0	1,050.0
가천대	50.0	1,000.0	1,050.0
성균관대	50.0	1,000.0	1,050.0
중앙대	50.0	1,000.0	1,050.0
충남대	50.0	1,000.0	1,050.0
충북대	50.0	1,000.0	1,050.0
충청대	50.0	1,000.0	1,050.0
경북대	50.0	1,000.0	1,050.0
경남대	50.0	1,000.0	1,050.0
전남대	50.0	1,000.0	1,050.0
전북대	50.0	1,000.0	1,050.0
전라대	50.0	1,000.0	1,050.0
제주대	50.0	1,000.0	1,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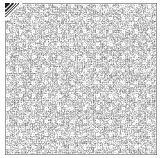
출처 : 부산일보 2018.10.10(수)

장학금 1인당 417만 원대 부산가톨릭대-동명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가장 많아

평균 등록금 인제대 가장 비싸고 1인당 교육비 부산대 등 국립대 두세 종도대학 학생생활수준에 상대해 놓고 전일교원 강의 담당비율도 고신대 최고

장학금 1인당 417만 원대 부산가톨릭대-동명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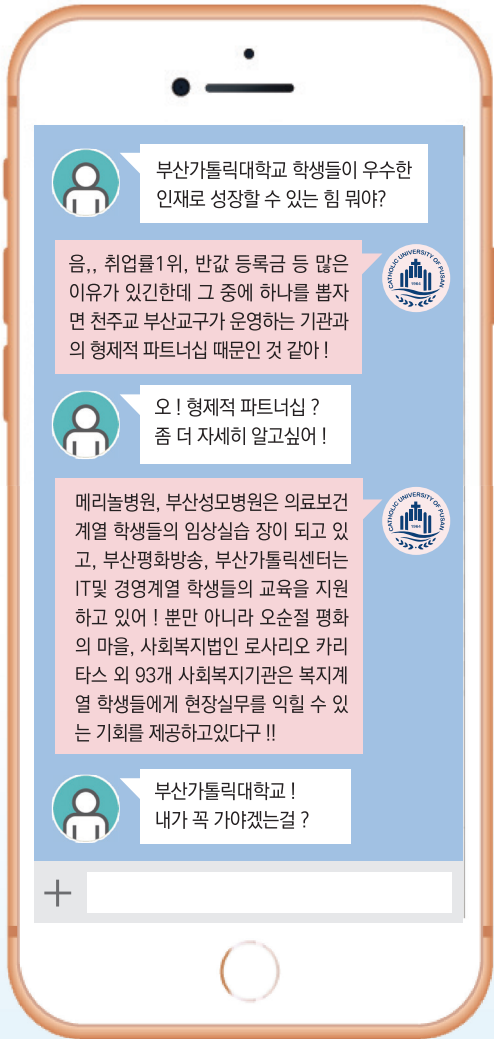
평균 등록금 인제대 가장 비싸고 1인당 교육비 부산대 등 국립대 두세 종도대학 학생생활수준에 상대해 놓고 전일교원 강의 담당비율도 고신대 최고



사랑과 봉사... 신앙을 통한 행복!

CaTalk

Catholic university of pusan's Talk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교목처에서 보카시오(가톨릭 밴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미사 전례 봉사를 통한 신앙생활이 너무 보람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려운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제 나름의 대답으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관련하여 저는 이번 여름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한국가톨릭계대학 주관 대만에서 실시하는 프란치스코 봉사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 캠프는 교황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한국가톨릭계대학들의 교류를 위한 캠프로 올해가 3회째 실시하는 행사였습니다. 사실 해외봉사는 것이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자 한번은 너무나 해보고 싶은 경험이었지만, 아직 저에게는 봉사라는 생소한 경험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대만에는 한국, 대만, 일본에서 온 제 또래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는 언어의 장벽으로 외국인과의 소통이 서먹하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와 같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동고동락하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자 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로 인해 첫 만남의 어색함과 불편함은 어느새 설레임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대단한 봉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별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었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학교에서도 다양한 신앙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교황님의 정신을 본받은 해외봉사캠프에 참가함으로써 다양한 친구들과 문화도 교류하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느끼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저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신앙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로 인해 더욱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학교에 입학할 또 다른 저와 같은 학생들도 신앙생활을 통한 즐겁고 행복한 대학생활이 되길 기도합니다.

■ 강 승 리 마리아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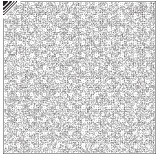
201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주요사항

전형명	정시'가'군	- 일반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사회배려대상자전형(정원외) - 우리대학은 '가'군만 모집
모집인원	147명	- 수시모집 최종 등록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과별 모집인원은 모집요강 참고
선발방식	수능성적 100%	- 국어, 수학, 탐구(2과목)은 표준점수, 영어는 등급별 점수로 반영 - 수학영역 '가'형 응시자에게겐 취득 표준점수의 가산점 2% 부여
문/이과 교차지원	교차지원 가능 (지원에 따른 가감점 없음)	

2019학년도 정시모집요강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나는 누구인가?"

“신부님, 저 모르시겠어요?”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가려는데 한 학생이 묻는다. 원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이럴 때가 가장 난감하다. 내가 기억을 못 해 당황하자, 아주 실망한 표정이다. “저 신부님 계실 때 첫 영성체했었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가 스무 살 대학생이 되었는데 알아본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싶지만, 그래도 아직 나를 기억해주고 또 먼저 와서 인사해주니 반갑고 기쁘다. 대학교에 있다 보면 종종 예전에 보좌신부로 있었던 성당의 아이들을 만나곤 한다.

대학에 온 지 이제 만 6년이 지나고 7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본당에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과 지냈던 시간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러다 예전 본당의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 참 반갑고 좋다.

가톨릭대학교라고는 하지만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다 신자도 아니고, 교리나 종교적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가끔은 내가 신부가 맞나 싶을 때도 있었다. 인문교양학부 교수로서 하는 교양수업과 학생생활교육관(기숙사) 관장으로서 일도 보람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동기 신부들이 청소년 사목이나 교리교육에 관해 고민하는 내용이 때로는 진짜 신부가 하는 고민 같아서 부러워 보일 때가 많았다. 하지만 가끔 고

해성사를 청하러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신자는 아니지만, 신부에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찾아오는 학생들이 이런 나를 다시 사제로 살게 했다.

우리 학교에는 6명의 사제와 1명의 수녀가 있다. 각자 담당하는 수업도 다르고 보직도 다르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든지, ‘삶의 지향을 어디로 두고 있는가?’, ‘누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다. 본당이라는 곳에서는 사제로 살고, 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다면 그건 환경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아직도 잘 못 잡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반성이다.

요즘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학 연령의 인구가 해마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대학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상황에 맞추어 많은 것을 바꾸고,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 노력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자칫 대학이 왜 있어야 하는지? 왜 교회가 대학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중독과

사회’와 ‘그리스도교 정신’이라는 두 개의 수업이다. 그중에 ‘그리스도교 정신’ 수업은 우리 학교 학생이 1학년 때 학과별로 듣게 되는 필수 교양과목이다. 이름만 들으면 학생들이 참 싫어할 것만 같다. 왠지 종교 수업 같고, 정신이라는 표현이 군대에서 하는 교육 같은 느낌도 있다.

가톨릭교회의 정신은 보편적이다. 하느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다. 그 보편성은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를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준비한다. 성격과 과제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지만, 가볍지 않은 주제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주고자 한다. 그래서 늘 과목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질문을 사제로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과, 우리 학교에도 물어본다.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하루를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한다.

홍성민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교육관장

2019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편입학전형 일정안내

정시모집			편입학		
전형명	구분	일시	전형명	구분	일시
정시 '가'군	원서접수	2018.12.29.(토) 09:00 ~ 2019.1.3.(목) 18:00	편입학	원서접수	2019.1.7.(월) 09:00 ~ 2019.1.11.(금) 18:00
	합격자발표	2019.1.18.(금) 14:00		합격자발표	2019.1.25.(금) 14:00
문의처 및 자세한 정보 : 051)510-0701~4					



지난
입시결과



편입학
안내

